



제목	The Nativist Prophets of Early Islamic Iran: Rural Revolt and Local Zoroastrianism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4. 3. 20.
저자	Patricia Crone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586
ISBN 또는 ISSN	978-1107642386

내용 요약

이 책은 이란 시골지역의 무슬림 침투에 대한 이란인들의 반응과 이후에 일어난 반란들, 그리고 그 반란에서 나타난 종교 공동체를 연구한 책이다. 이 책은 2천년의 기간 동안 이란에서 매우 끈기 있게 이어져 온 복합적인 종교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핵심적인 주제는 복합적인 종교사상이 이란의 신약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유한 것이었으며 가끔은 나라 전체의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널리 유행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지리적인 구분에 따라 반란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각 운동의 지역적인 특성을 보여주며, 또한 그 운동이 이슬람의 침입에 대항한 이란 전역의 저항이었다는 주장에 의문을 가지도록 한다. 이러한 저항운동은 국가종교로서의 공식적인 조로아스터교가 이란의 많은 지역을 점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초기 이슬람의 시기였던 그때 이미 조로아스터교는 기독교, 마즈닥교, 마니교, 그리고 불교의 영향으로 약화된 상태였다.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에서 저자는 이러한 저항운동들의 신앙체계-우주론과 종말론, 신의 내재, 환생, 조직방식 등과 관련-한-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저항운동의 신앙체계를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 마니교, 조로아스터교(지역적 조로아스터교와 공식적 조로아스터교)와 비교한다. 이란의 시골지역의 종교운동과 종교공동체를 연구한 이 책은, 도시 엘리트와 이란의 독자적인 것만 연구주제로 삼아온 기존 이란 역사 연구방식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